

당신을 위한 가게 대본

에피소드 1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S#1 상점 안

고풍스럽고 앤틱한 욕망 상점 안, 상점주인은 주변을 정돈하고 있다. 분주한 손놀림과 다르게 그의 모습에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이 일을 수 시대가 지나가도록 해내왔으니, 능숙해진 것이 당연하다. 지겹도록 오래된 삶을 끝내고 싶어할만도 하다만, 사람들의 삶, 그리고 욕망의 모양을 관찰하는 일은 여전히 그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사람의 욕망의 생김새도,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도 각각이니, 어찌 재미가 없겠는가. 이 일을 사랑하는 그는 아이같은 순수함과 초월적인 존재의 진중함이 공존한다.

그는 그림 하나를 닦고 있다. 그림은 장 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그는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바닥에 놓여있는 책의 정렬을 똑바로 맞춘다. 경쾌한 걸음으로 작은 티 테이블을 바라본다, 곧 그곳에 한 손님이 오실 줄 알고 있으니.

(상점의 문이 열리는 신비로운 종소리)

상점주인 (바로,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돌아보며) 오셨어요?

피그말리온 (당황. 머뭇거리며 뭐라 말하려 입을 떼지만 정확하게 무어라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상점주인 (싱긋 웃으며) 여기 앉으세요.

상점 주인은 편안히 있으라는 말 대신 눈짓을 보내고, 건너편의 탁자에서 차를 따른다. 다과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차는 식으니, 이제야 따르는 것이다. 피그말리온은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듯, 병뚜껑이 있다. 상점 주인은 그는 여태까지의 손님들이 더러 그러하듯, 멘탈이 터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손님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말을 건넨다. 그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납득시키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다.

(차를 따르는 소리)

상점주인 (차를 따르며) 왜요?

피그말리온 저는... 저는! 분명 방금 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점주인 알아요.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두근 두근 나의 공주님과 나는 이 세계 최고의 용사...>

피그말리온 (사생활을 알았다는 놀라움보다는 부끄러움에 말을 끊으며) 아잇!

상점주인 부끄러워요? 그거보다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오는데.

한창 게임 하시다가 중간 광고 누르셨죠?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찾아드립니다.”

피그말리온은 (놀라서 움찔하다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다.)

상점주인 순진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손님이 보시던 로맨스 소설에는 이런 만남은...
없었는데. 혹시 저번주 연애 타로 때문이에요?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것이다?”

피그말리온 타로는 자주 봐서 저번주 말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다 같이 일관적이어야
기억을

하던가 하지. 제대로 된 놈은 없고 다 사기꾼 새끼들이야. 맥은 좀 용한것 같네.
함 봐봐요. 어떻게 굴러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구석도 뭐, 타로집 같네.

상점주인 나름 새롭게 인테리어 한거예요. 요새 인간들은 트렌드가 너무 쉽게 변해서 이제
이곳도 이질감이 드나 보죠? 묘하게 위압감 느껴진다나. 그래도 편하게
말해봐요.

손님 이야기.

피그말리온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필요해요.

상점주인 게임 속 크리스티나 공주님으로는 부족했나보죠?

피그말리온 아잇, 진짜.

상점주인 미안해요. 계속 말해봐요. 그럼 왜 여태까지 사랑하지 않았죠?

피그말리온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상점주인 역설적이네요.

피그말리온 저, 망상 참 잘하거든요. 아, 내 여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저씨, 밤에 생각해본적 있어요? 상상하다보면, 그 끝에 다다르면, 막
불안해지는데! 그런 거요. 누나처럼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상점주인 (손님 디저트 하나 집어 먹으면서) 아 이혼한 그 분. 안타까웠죠.

작년에 오셨어요. 모르시겠지만.

피그말리온 (놀란 표정) 어..어떻게..?

상점주인 (서류를 보고, 무언가를 잠시 쓰다가 넘기며) 손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매일
보시는

로맨스 영화와 소설... 타로, 연애운, 미연시 게임, 웹툰.. (서류 여러장을 넘기며)
사생활이라 기분 나쁘세요? 손님도 본인 이상형이 갖춰야하는 덕목 수뭇까지
적어놓으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보며) 아, 근데 정말
연애, 아니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두려움 수치가 높으세요.

피그말리온 (알고 있다는듯) 아..네...

상점주인 (서류를 덮으면서) 손님, 두 가지 중에 골라봐요. 손님을 바꿔드릴까, 아니면...

피그말리온 내 이상형을 데리고 올까?

상점주인 이미 정해진 것 같네요. 손님을 위해선 주문제작이 들어가야할 거 같아요.

걱정마세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깐. (상점 뒤에 있는 펜과 종이를 가져오고
내밀면서) 여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애인의 모습을 써주세요.

겉모습, 성격, 행동 모두.

피그말리온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지만 이내 펜을 잡는다

상점주인 (미소를 띄며) 많이 생각해 보셨잖아요?

피그말리온은 작성은 완료한다.

상점주인 (종이를 훑어보며)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어서서, 뒤에서 인형을 가져온다)

인형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상점주인 (이름표를 만지작 거리면서) 갈라테이아. 전 주인이 붙였던 이름인데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돼요.

피그말리온 (상점 주인이 준 인형을 얼떨결에 받으며) 갈..라..테이아..?

피그말리온의 눈에 비친 인형의 잔상에 그의 이상형이 스친다. 피그말리온의 눈이 화들짝
커진다.

피그말리온 (놀라면서) 어??

상점주인 (웃으며) 손님이 원하시던 것 맞죠?

피그말리온 (고개 끄덕이며 얼떨떨)네...네!

상점주인 잘 되었네요.

인형을 바라보는 피그말리온의 표정이 아래서부터 클로즈업 되며 씬이 마무리된다. (기생충
기우와 수석의 첫 만남 참조)